

이재명 선방...윤석열 선전...안철수·심상정 분전

이, 대장동 완벽 방어 못해...윤, 청약접수 등 줄줄이 오답 사드 추가 배치 놓고 이재명·심상정 맹공에 윤석열 진담

대선후보 첫 TV 토론 쟁점은?

3일 열린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는 부동산과 외교 안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 토론 중심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 과정에 '네거티브'를 지양하면서 정책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이 후보를 몰아붙이면서 두 후보간 토론회 내용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는 평가다. 또한, 윤 후보는 주택 정책 분야와 외교 안보 분야, 특히 북한 선제타격과 관련해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수세에 몰리기도 했다.

◇대장동 의혹 공방=윤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에 이 후보는 검찰의 대장동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문제와 국민의힘의 공공개발 반대, 윤 후보의 부친 집 매각 의혹으로 응수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다"며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능하고 설계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 윤 후보가 말한 것은 저번에 제가 일부러 국감을 자청해서 이틀 동안 탈탈 털다 시피 검증했던 사실"이라며 "최근 언론까지 검증했고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며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민생과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떻까"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거 생각해보셨나? 저축은행 대출비리는 왜 보았을까? 우연히 김만배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찰라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비밀 평생 간직하자는 사람이 입만 병긋하면 윤석열은 죽는다는 말을 왜 할까. 국민의 힘은 왜 극렬하게 공공 개발을 막았을까?"라고 되받아쳤다.

◇부동산 정책 놓고 불꽃 공방...윤석열, 오답에 '진담'도=이번 대선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네 후보 간에 불꽃튀는 공방도 벌어졌다.

네 후보는 주택 공급과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자신들의 부동산 공약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라며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또 "25억 주택에 사는 사람이 50만원의 중부세를 내는 걸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면서 "매월 월세 60만원씩 내고 있는 청년들은 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공급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서울에 주택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중부세를 그냥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5점 공약'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가 주택청약 관련 질문에 '오답'을 내놓고 진담을 흘리기도 했다. 안 후보는 "군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청약에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다는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보상과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청약접수 만점이 몇점이라고 묻는 안 후보의 질문에 "40점"이라고 답해 안 후보가 "84점"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 타격 놓고 충돌=이 후보와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집중 공략했다.

심 후보가 먼저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군사 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 않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선제타격은 윤 후보가 전제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하시면 불안을 조성하는 안보 포퓰리즘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기 위해서"라면서 "핵을 갖고 나서 보복하면 뭐하느냐. 김제인을 가동할 때쯤 되면 그건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 CEO" "일 잘하는 해결사" "복지대통령"=이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 정말 위기다. 경제도, 코로나 위기도, 대전환의 위기도, 국제관계도, 남북관계도 정말 어렵다"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제가 책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선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한민국의 CEO를 뽑는 선거"라며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세계 일할 기회를 달라. 말 잘하는 해설사가 아니라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서민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첫 번째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전남 이틀연속 코로나 확진 1000명대

설 연휴 기간 신규 확진자 급증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오늘 발표

광주·전남에서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뿌리내린 상황에서, 설 연휴 기간 가족 간 접촉 등에 따른 확산세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 694명, 전남 454명 등 1148명이 신규 확진됐다. 앞서 설 당일인 지난 1일 광주 618명, 전남 464명 등 1082명이 확진됐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1월 29~2월 2일)을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광주는 2771명, 전남은 1942명 등 4713명이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날도 광주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구 요양병원에서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24명에 이르렀다. 광산구 제조업체에서도 1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전남에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하루에만 순천 84명, 여수 69명, 목포 61명, 무안 34명, 장성 25명, 나주·광양 각 21명, 담양 18명, 영암 14명, 보성·함평 각 13명, 완도 12명, 구례 11명, 해남·진도 각 9명, 곡성 8명, 화순·고흥·영광 각 7명, 강진 6명, 장흥 3명, 신안 2명 등이 신규 감염됐다. 특히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과 목포, 나주, 장성지역 감염세가 거세다.

전국에선 지난 2일(3일 0시 기준) 하루 동안 2만 2907명이 신규 확진됐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90만 7214명이 됐다. 국내 신규확진자는 지난 2일 새벽 0시 기준 2만 269명으로 처음 2만명대로 올라섰는데, 하루 새 2638명 늘어 이날 2만 3000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26일(1만 3009명) 첫 1만명대를 기록한 뒤 불과 일주일새 2만명대로 늘면서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만 확진자 급증세가 아직 위중증 환자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74명으로 전남보다 4명 줄면서 첫 새해 200명대를 이어갔다.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6812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75%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0.9%대에 이르렀으나, 위중증률이 델타의 5분의 1 수준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0.7%대까지 낮아진 상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 발생 2만 2773명, 해외유입 134명이다. 지역별 발생 확진자는 경기 6532명, 서울 5191명, 인천 1533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1만 3256명(58.2%)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신규확진자가 연일 1-2만명씩 쏟아진다는 점에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 6명, 식당 등 영업 허용 시간 밤 9시 등 현행 거리두기 방안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재명 40.4%·윤석열 38.5%...오차범위 접전 한길리서치 조사...안철수 8.2%

다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이뤄진 조사 결과지만 두 양당 후보의 박빙 접전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안갯속 판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 내인 1.9%포인트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2%, 정의당 심상정 후보 3.3% 순이었다.

세대별로 이 후보는 30대, 40대, 50대에서 앞섰고, 윤 후보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앞섰다. 30대의 경우 이 후보 43.1%, 윤 후보 34.7%의 지지율을 보였고, 40대에서 이 후보 50.5%, 윤 후보 30.1%, 50대에서 이 후보 49.3%, 윤 후보 31.8%를 기록했

다.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50.9%를 차지했고, 이 후보는 32.1%였다. 18~29세에서 윤 후보는 37.2%, 이 후보는 31.2%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83.8%, 무작위 임의전화걸기 추출)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6
		예능	12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 학 과 한국어교육학과	○○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